



## 5월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달



정흥수  
한국방재협회장

우리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와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그러한 가운데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고 있다. 미래의 이상향을 쫓아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면서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문명의 이기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 이 자연을 보존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앞 다투어 경쟁적으로 대자연을 훼손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곧 지구온난화로 이어 지면서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의 함정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현상은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지금 이 시각 잠깐 멈추어 곱씹어 보는 지혜와 혜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방재·재난안전 조직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 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업무가 쉽게 국민의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분야별 행동요령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실제 재난상황에 접했을 때 재난 유형에 맞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문까지도 꼼꼼히 챙김은 물론 재난안전대처요령을 재난이 발생된 환경에 맞도록 체계화 했다.

「5월은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달」이라고 칼럼의 제목을 정한 것은 20세기 후반(1970~1999)과 21세기 초(2000~2006)까지는 자연재해발생(지진제외) 빈도가 높았고 그 규모도 비교적 컸으나 그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간의 우리나라 자연재해 통계가 말해주듯이... 우선 금년의 기상패턴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며

지켜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보고서에 의하면 전 지구는 지난 약 133년 동안 기온이 0.85℃ 상승하였지만 21세기말 평균 최대기온은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과거 100년간 해수면 상승은 19cm 상승에 불과하였지만 21세기 말에는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과거 100년간은 0.74℃ 상승하였으나 21세기 말 평균 최대기온은 5.3℃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 지구 평균보다 1.6℃가 더 상승되는 현상을 맞게 되며 가뭄의 경우에도 과거 30년 대비 21세기 말에는 최대 3.4배 증가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너무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문가 집단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인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부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이 지난 3월호 방재저널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이 추웠다. 평균기온으로 보아도 평년에 비해 2.3℃가 낮았다. 이는 그동안 기상통계에 따르면 겨울이 추우면 상대적으로 이듬해 여름은 고온다습한 현상이 발생하고 풍수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는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패턴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실사구시의 방재·재난안전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름철 홍수, 태풍 등이 내습했을 시 재난 유형별로 기존 준비되어 있는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숙지함은 물론 안전한국 훈련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습, 관리, 대응 등 정부, 자치단체의 재난 종사자가 재난환경 중심에서 각기 처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도상훈련을 실시,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을 터득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첩경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 군, 경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 국민과 함께 물샐틈없는 자연재해대책 관리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그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2018년은 새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해로서 방재·재난안전을 관장하는 공직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선진화된 재난안전 체계를 극대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는 한해로 만들어 나아갔으면 한다.

이제는 후진국형 재난 관리는 먼 나라의 얘기로 묻어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한반도의 평화가 용틀임함과 같이 온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재·재난안전 정책을 펴 열심을 다하는 재난안전종사자의 환한 모습을 그려보자.